

# 불황타개 노력속 세계시장 개척

### 전국 불서展 · 올해의 불서 선정 · 원고 공모 등 눈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국내 출판 활성화에 한몫

#### 2005 불교출판계 결산

2005년 불교출판계는 지난해 겪었던 최악의 출판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우리나라가 주권국이 되어 치른 2005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은 국내 일반·교계 출판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행 열풍은 종단 차원에서 펴낸 <간화선>(조계종출판사)과 <수행법 연구>(조계종출판사) 등 굵직한 선(禪)수행서 발간의 기록제가 됐다. 또한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는 '전국 불서 전시회'와 '올해의 불서 10' 선정작업을 펼치는 등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올해 국내 출판계의 가장 큰 행사였던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었다. 10월 18-2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이 도서전에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지지심체요절>과 목판 인쇄물인 <팔만대장경> 등이 전시돼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고, <지눌의 선사상> <선가귀감> <삼국유사> 등의 불서들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선보였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서는 <지

지심체요절>을 영어로 옮긴 <지지>를 전시해 최고 금속활자본에 담긴 불교사상을 세계출판시장에 전하기도 했다.

선 수행 열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판계 '태풍의 핵'이었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발간한 선 수행 안내서 <간화선>은 판매부수 1만여 권을 훌쩍 넘겼고, 열불 간경 등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한 <수행법 연구>를 비롯해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집 <설선(說禪) 문 없는 문을 열다>(여시아문, 장휘숙·김사업 교수의 수행체험기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더북컴퍼니),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동국대출판부) 등의 수행서도 잇달아 출간돼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탐험>(여시아문)과 <조용현의 사찰기행>(이가서), <불교미술기행>(이가서),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이치) <유쾌하게 읽는 불교>(동송동) 등 불교문화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책들도 불교출판의 한 주류를 이뤘다.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불출협은 올 한해 바쁜 행보를 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전국 62개 서점에서 '전국 불서 전시회'를 개최했고, 한해 동안 출간된 불교서적 중 양서를 가려 뽑는 '올해의 불서 10'을 선정·시상하는 등 불서 알리기에 앞장섰다. '올해의 불서 10'에 출품된 불서들



우리나라가 주권국이 되어 치른 2005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는 <지지>와 <삼국유사>를 비롯한 많은 불서가 소개돼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사진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열린 독일어판 <삼국유사> 출판기념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로 짙어본 출판 흐름 역시 수행서와 불교문화 관련 서 등 '현대인들에게 불교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책'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개최한 불교계 최초의 '출판 원고 공모전'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잠깐

한 원고와 대중적인 필자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두 달여라는 긴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30여 편의 원고와 접수돼 공모를 통한 출판 원고 발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출판사 대부분이 주제적인 이야기에 그쳐 대상을 배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를 펴낸 장석남 시인과 미당문학상을 수상한 문태준 시인 등 불교계 세계관을 담은 시집은 여럿 선보인 반면 불교적 소재를 다룬 소설은 남지삼씨의 <청화 큰스님> 정도만 눈에 띄는 정도 아쉽다.

한편, 무비 스님(범어사 승가대학장)이 펴낸 <한글세대를 위한 경전> 시리즈 등 15권의 책과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시설인 정모마을을 이끄는 수행 스님의 에세이 <삼십삼해>,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겠는>을 한해 불교출판계의 큰 수확으로 손꼽힌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眞法 모르면 생각 생각이 다 습이 되고 업이 되지"

#### 진제 스님 법문 · 문답 엮어

"어떻게 해야 업장 소멸이 됩니까?" "참화하는 것도 조그마한 업장 소멸은 되는 것이지만, 견성을 해야 모든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다."

"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생활 가운데 가지가지 습기(習氣)로 이루어진다."

"생각이 업이라고 하는데요?" "진법(眞法)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법이지만, 중생은 진법을 모르니까 생각 생각이 다 습이 되고 업이 되는 것이다."

'복숭달(인천 율화선원 선원장) 남진제'로 불릴 만큼 당대 최고의 선사(禪師)로 존경받는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의 법문집 <선 백문백답>이 나왔다. 책에는 '동화사 기초선원 좌담법문(1997년)' '기묘년 동안거 대중과의 문답(1999년)' '설선대법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2005년)' 등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던 스님의 법문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는 대중들에게 한 치의 막힘 없이 답해주는 스님의 법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1971년 부산에 해운정사를 창건한 진제 스님은 이후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을 역임했고 2002년 국제무차선대법회를 개최해 한중일 선사들과 법거랑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원장과 동화사·해운정사 조실을 맡아 수많은 운수남자들을 키워내고 있다.



진제대선사 선만 백문백답 해운정사 엮음 현대불교신문사 | 7천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 깨달음에 이르는 짧은 글, 긴 생각

깨달음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선지식의 한 마디 가르침이나 깊은 사색이 담긴 한 구절의 아포리즘(aphorism), 격언·은유에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이)이 엮은 <산사일기>와 성전 스님의 에세이 <지금 후회없이 사랑하라> 역시 짧지만 긴 생각의 여운을 갖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산사일기>는 성우 스님이 불교경전뿐 아니라 유명인들의 어록, 시집 등에서 가려 뽑은 81편의 짧은 글귀를 담은 책이다. 길어 야 원고지 1~2매를 넘지 않는 글에 불교 심화전문가로 활동 중인 응정운씨의 따뜻한 그림이 이루어져 사색의 깊이를 더한다.

"잡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힘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늘 흔들리고 제멋대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행복의 지름길을 당신의 마음을 잡는 데 있습니다."(법구경 중)

정확한 문체와 화려한 색채를 뽐내는 책들 속에서 모처럼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잔잔한 휴식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책이다.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빈손> 등의 에세이집을 통해 '미소 스님'이란 애칭으로 널리 알려진 성전 스님은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에서 '사랑하는 법'을 일러 준다.

"내게 사랑은 언제나 나를 버치는 것이다. 나를 온전히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은 수행이기도 하다. 사랑의 이성적 의미에

도 불구하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수행의 언어이고 또한 가장 빛나는 삶의 언어이다. 사랑이 없다면 무엇을 일러 수행이라 할 수 있고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불교방송의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고 있는 스님이 프로그램 말미에 청취자에게 전한 '오늘의 발원'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경전 한 구절과 스님의 메시지를 번갈아 실었다. 안도현 시인은 "깊은 울림을 주는 경구들과 성전 스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사랑법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준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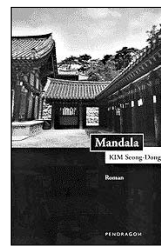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 '만다라' 불가리아어 번역 · 출간

#### 한국문학번역원, '선가귀감' 체코어 번역 예정

김성동씨의 장편 구도 소설 <만다라>가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진형준)의 지원을 받아 불가리아어로 번역·출간됐다(사진).

1979년 국내에 출간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소설은 이후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작가 자신이 2001년 결말을 바꾼 개작판을 출간하기도 했다. 번역은 최권진 교수(소피아대 한



국학과)와 류드밀라 아타나소바(서울대 국문학과 박사과정)가 맡았고, 현지 출판사 세마르쉬(Semarskhi)에서 출간됐다.

<만다라>는 1992년 프랑스어, 2000년 영어, 2005년 독일어로 번역·출판된 바 있다. 한편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은

체코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5년도 4/4분기 한국문학 신규 번역지원사업 지원대상작에 <선가귀감>을 비롯한 15권을 선정했다. <선가귀감>의 번역은 전문번역가 이바나 그루

베로바치가 맡는다. 이번 선정 심사는 200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13개 언어권 33건의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3차의 심사를 거쳐 3건의 고전과 12건의 현대문학작품이 선정됐다.

각 지원대상자에게는 약정된 번역지원금이 지급되며, 번역이 완료되면 해당 언어권의 현지출판사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 종무원·행자·공양주·모집

- 1. 종무원**  
컴퓨터, 운전, 행정사무를 두루 볼 수 있는자 (남·여 불문)
- 2. 행자**  
스님이 되고자 하는, 건강하고 불심 깊은 사람
- 3. 공양주**  
위 각 1~2명씩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주민등록증, 이력서 지참 내사하기 바람  
불기 2549년 11월 29일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대한불교  
조계종 **현지사**

#### 알림

연 5개월째 연속 베스트셀러 (위를 유지하고 있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 판매는

- 1. 현지사 033)243-1787,1795
- 2. 부산 현지사(분원) 051)554-5150

##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빛의 존재, 붓다는 무어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 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5개월여만에 5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  
(도서출판 운주사 11월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정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에 부흥....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 11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거듭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11월호)
- 2005년 9월 4일 부터 12개월간 자재만현스님의 매일 첫째 일요일 불교TV 방송설법을 시청하시라!

현지중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